

사·부·대·중

불교문화 제대로 관리

산청에 성철스님 기념관 개관준비를 하면서 문화재 보존 작업을 하는 분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 분이 회화 작품의 보존 처리 작업을 하다 보니 이야기는 자연스럽 게 불화 쪽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불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아쉬운 그 시간에 그 분은 사찰에서 불화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주로 거론했다.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회 연학실

돌아오는 길은 씁쓸했다.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가 불교문화인데, 그런 것이 어떻게 미신이나며 목청을 돋운 것이 우리 불교계가 아니었던가? 정작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며 보존하고 있는지, 문화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그리고는 선원, 강원, 울진 외에 보존원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분야의 불교계 전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후불탱화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기 위해 식빵을 사용하는 이야기, 불화를 도난당하고도 어떤 그림이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스님들, 아예 소장한 문화재의 목록도 존재하지 않는 사찰, 그리고 그렇게 도난당한 불화도 10년만 지나면 되찾아올 수 없는 불법적인 현실 등등을 이야기하는 그분의 목소리는 어느새 높아져 있었다. 그분이 비난적인 말투로 내린 결론은 스님들이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원 외에 보존원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분야의 불교계 전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런 씁쓸함을 씻어줄 만한 기사를 최근 보게 되었다. 내년에 송광사에 '성보수교습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일련에 방송에도 소개된 재일교포 문화재 복원 전문가가 맡는다고 한다. 종단적 차원이 아닌 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기사를 보면 재가자를 위한 기관으로 보이는데 이왕이면 스님들도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사실 사찰에 가서 주련의 내용을 알아 보려다가 무안함을 당했던 기억을 몇 번 가진 나로서는 스님들에 대한 그분의 인상을 바꾸어 주어야 할텐데 하면서도 내심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동안거 결제에 들어간 한 달이 되어간다. 방부 틀이고 용병정진하는 것만 안된다. 바로 재정 확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1만여개의 시민단체의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도는 50% 정도이다. 나머지는 부정기적인 후원금, 정부의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목탁소리

태고종의 '위상'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지난 5일 오후 태고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린 태고종 전국 시도 교구 총무원장 및 각급 기관장 회의는 취재간 기자들을 매우 실망시켰다. 종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선출되고 처음으로 열린, 태고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스님들의 월례회의임에도 12명(2명은 새로 임명된 부장)만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 총무원장과 시급한 여러 중무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총 26명중 절반도 안되는 인원만 참석할 것을 보니 태고종이 왜 잠깐적인 침체에 빠져있었는가 그 원인을 알 것 같았다. 회의 때마다 이 정도 수의 사람들이 참석한다고 한다. 이렇게 협조가 안되고 관심이 없는데 중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불원사 주지 이흥으로 '이번에 선출된 총무원장이 자격이 없다'는 청원서가 나왔다. '총무원장 흔들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태고종이 '개혁'은 커녕 도리어 '내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자격이나 절차상의 이의는 선거를 하기 전 총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종연스님의 공약의 실현 여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비판해도 충분할 것이다. 만에 하나 계속적으로 간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태고종의 정통종단으로서의 자부심과 위상은 곤두박질치고 제2종단으로서의 위상회복은 어쩌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새 총무원장이 선출됐다. 태고종이 새로 선출된 총무원장을 앞장 세우고 정발로 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무관심과 방임으로 그대로 답보에 머물고 말지는 전적으로 태고종도들의 손에 달렸다. 그런데 미처 취임식도 하기 전에 태고종의 수(首)사찰 3사중 하나인

안정과 화합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아무리 능한 지도자라도 능력이나 구상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는 법이다. 교계는 지금 태고종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승종진작, 교육불사, 복지, 포교 등 대승불교 교화종단임을 자부하는 태고종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힘을 합치고 축적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소모적인 분쟁으로 그나마 있는 힘마저 낭비한다는 것이 될 말인가.

불교단체, 기금·기부금제 도입

“10년후 불교 준비한다”

재정난 해결-목적사업 진행 ‘일석이조’

“시민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매일매일 절망밖에 없다는 걸 느낍니다. 사무국 직원을 월급을 못줄 때가 있어요. 돈을 빌리기 위해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봤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 가운데 하나인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이 지난 8월 우리는선우 초청 강연에서 시민운동단체의 재정난을 토로하면서 한 말이다.

21세기를 시민운동의 시대라고 한다. 4.13총선 시민연대, 소액주주운동 등의 모습을 경험했기에 앞의 규정을 허연으로 평가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UN의 각종 회의나 국제회의에서는 민간단체포럼을 하나의 공식 행사로 자리잡았다. 시민운동을 '제3섹터'라고 표현하듯, 시민단체는 정부와 기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의 척도로서 시민운동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외에 새롭게 돌출되는 사업을 하려 해도 업무를 내지 못한다. 일하는 사람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그렇다면, 10년 전 있었던 불교운동 단체 가운데 지금도 초발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몇 곳이나 될까. 10년이 지난 후 그러한 단체는 또 몇이나 될까.

하나의 대안으로, 대안이라고보다 또 한번의 새로운 시도로써 기금, 기부금 제도의 도입, 운영이 논의되고 있다. 몇 단체에서는 이미 기금을 쌓아가고 있다.

99년부터 회비전액 기금화

우리는 선우 99년 1월부터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모두

적립해 기금화하고 있다. '21세기 발전기금'이다. "회비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적립하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였다. 회비는 기금화하고 운영비는 이사와들과 임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우리는선우 회원은 발전기금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네 가지 목적사업(국제승보공경, 화랑선우, 시민선우, 백련선우) 가운데 하나 이상을 지정해 후원금을 낸다.

지방에 있는 지회의 경우 회비의 절반은 지회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기금으로 중앙에 보낸다.



▷ 평불협이 후원금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금강국수공장 후원금은 전액 북한 동포들에게 쓰인다. 사진은 평불협 공동회장 법티스님과 김도현씨(법티스님 한사람 건너)가 금강국수공장을 둘러보는 모습.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들어온 기금 및 후원금이 1854만원이다. 현재까지 모인 기금은 5000여만원. 기금을 쓸 시기와 용도는 정하지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 5억원의 기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루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총회에서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쓸 곳은 많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마련하는데 쓸 수도 있다. 여러 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선우의 조정숙 재무과장은 기금 마련이 여러 단체에서 진행될 바란다고. "몇 단체에서 함께 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합니다."

1% 목적사업 기부안 구상

재가연대는 기부금 활용화를 위한 방안을 짜내는데 골몰하고 있다. 회비 의존도가 50%를 넘어가며, 미래에 대한 준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 목적사업기부'를 구상하고 있다. 수입의 1%를 기부하되, 청정교단운동, 참여불교아카데미 등 재가연대의 특정 활동을 지원해 그곳에 써달라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을 모두 사업비로 쓰는 것은 아니다. 50%는 적립해 회원이 지정한 사업의 확대에 쓰인다. 현재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회원이 사업을 제안하며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일종의 지정기부제이다.

"재정을 두둑하게 할 수 있을은 물론 회원들의 뜻이 사업에 골방 반영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영철 사무처장의 설명이다.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수공장 후원금 별도 운영

평불협은 북한의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후원금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매일 700여 만원이 들어오며, 전액 금강국수공장에 보낸다.

성명나눔실천회에서도 후원금 외에 목적사업지원금을 만들어 매월 1명의 장기이식 환자를 돕는 데 쓰고 있다.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지난 11월의 경우 60여명이 동참해 적게는 5000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성금을 쾌척했다.

회원들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사찰을 지정한 회비 납부제도를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 참여연대의 경우가 좋은 보기인데, 이 곳의 기금의 수는 20여개에 가깝다. 의자기금, 간사재충전기금, 라디오광도후원기금, 상근활동가 도시락기금 등 별난 이름이 붙어 있다. "참여연대의 활동가들이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며 업무를 볼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더욱 중요한 것은 불자들의 참여이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말이다. "한 절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올지? 불교가 이 지역 같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실력 정도만 들여서 참여연대 같은 조직을 만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하죠."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나도 한마디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

“참여없이 권리찾을 수 없지요”

시민사회단체(NGO)는 분명한 공익적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발적인 참여자와 후원자를 생명으로 한다. NGO의 시대는 곧 '참여의 시대'를 의미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 없이 발언(권리)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의 개발과 함께 기금 모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비영리 단체의 마케팅 방법

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활동의 많은 부분을 이것에 투자해야 한다. 우리보다 NGO활동이 앞선 외국NGO의 경우 후원기금의 절반 정도를 다시 기금 확보를 위한 마케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경우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고, 15개나 되는 다양한 기금을 만들어 후원자들의 바람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보시금'이나 '화주'라고 하는 고전적 방식에 익숙해 있는 불교단체들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더불어 불교NGO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교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지원법'이 조속히 중립으로 제정되고, 이 중립 속에 자원(봉사)활동 정도가 종단의 대소 공적 취임이나 포교사 고시, 종무원 채용 등에 반영되어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지 않고 비판하거나 냉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를 세는 목동'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아닐 수 없다.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퍼어지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닙니다. - 조선일보 -

原畫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 × 348mm (타이포미디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양장: 전면 컬러 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가격: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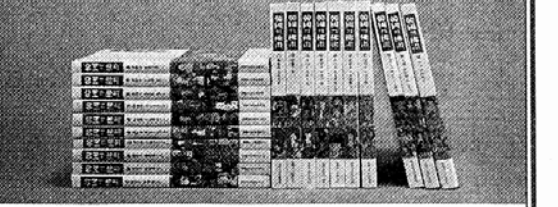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진전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리나라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단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단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 | | |
|------------------|-------------------|
| 제1권 통도사 본말사 편(상) |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
| 제2권 통도사 본말사 편(중) | 제12권 선암사 편 |
| 제3권 통도사 본말사 편(하) |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
|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
|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
|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
|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중) |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
| 제8권 격지사 본말사 편(상) |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Ⅰ) |
| 제9권 격지사 본말사 편(하) |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Ⅱ) |
|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가 200집 한정보급 기간: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